

SELF-EXAMINATION

省察

동성애와 교육

(2부)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 보기」 수업의 단상 [斷想]



‘인권교육의 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한국의 교육계 내에서 이전에 없었던 내홍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에 관해 1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본 인권교육,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논쟁, 교육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충돌의 상황들’을 소개하였다.

최근 이러한 충돌과 논쟁이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이하게도 혐오에서 역혐오로, 차별에서 역차별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장슬기 교사

현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소장 겸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과학교사연합모임 대표이며, 다수 대안학교 설립과 교육과정에 명예교사와 협력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래교육, 대안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과학교육에 관한 현장연구와 강의 또한 활발하게 하고 있다.

□ 혐오에서 역혐오로, 차별에서 역차별로의 변곡점에 서있다

해럴드경제에 의하면, 청소년성소수자 위기 지원센터 평동이 10대 성소수자 15명을 상대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이 교사의 부정적 발언으로 인해 자괴감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 가운데 92%가 다른 학생이 성소수자를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혐오로 인해 성소수자가 겪은 혐오현상이다.

반면 진보적인 학문적 배경을 가진 대학과 중등학교에서는 역혐오현상도 등장하고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수의 학생이나 교원들을 문해문맹자처럼 대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오히려 역혐오로 인한 자괴감을 겪고 있다.

2018년 NewDaily²에 의하면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 성중립 화장실설치³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님 : 성소수자 특집 2부’가 전파

를 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방송에서 교복을 입고 출연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은 “국내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성소수자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배뇨를 참아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또한 진보 가치를 중심에 둔 한국의 모학교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을 요청하는 학생들로 인해 학교 내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수자들이 이런 문화전치현상(transposition)에 당혹스러워하거나 역혐오 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전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성소수자혐오라는 현상이 소수자의 인권침해」로 규정되면서, 오히려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역혐오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이한 변곡점에 놓여있다고 보인다. 이는 다수의 일반인들의 동성애의 합법화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프레임’을 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혐오반대’에 관하여 공감하지만, 비폭력적이며 합리적인 의사로 반대의견을 가진 다수의 일반인들을 ‘혐오론자’로 매도하며, 그들을 역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1 해럴드 경제(2018.05.17) 「교사, 동성애 비난에 자괴감」 혐오에 떠는 10대 성소수자¹

2 NewDaily(2018.01.10) [르포] 「성범죄 우려 '성중립 화장실', 누굴 위한 것인가」

3 성중립 화장실이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남녀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공화장실을 뜻한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性)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교육계 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파열음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계 내에서 제기된 교육문제들과는 다른 패턴으로 한국교육을 요동치게 할 돌개바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풀어내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있는가?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학교현장에서 시도했던 ‘동성애 바라보기·바로보기’라는 수업을 소개할까한다. 한 학기의 수업과정이 이 문제에 관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발생할 근미래의 상황을 풀어낼 하나의 단초로서, 교육적 실험을 했던 짧은 단상을 나누려한다.

▣ 교사, 수업으로 말하다

필자는 교육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였기에, ‘동성애’의 문제가 학교장 밖에서 일어나는 성인들의 요란스런 정책싸움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에 관한 가치관의 논쟁을 벌여지는 동안, 필자 역시 여러 학교(사립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교육과정을 관여하면서, ‘동성애’로 인해 충격 받고, 고뇌하고, 함께 앓이하는 상황들을 여러 곳에서 목격하게 되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감히 조언할 수 없는, 혼란과 힘겨움 그 자체였다, 학생들에게 ...

두 번째 기고문에서는 ‘정책’이 아닌 ‘수업’으로 말하고 싶었다. 교육이란 정책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정책으로부터 우리

주위에서 앓이하는 학생들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싶었다. 깨어 있는 교사라면, 특성의 신념을 가진 단체 혹은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책들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수업으로 상담으로 그들과 함께 앓이해야 존재이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도 한 학생이 찾아왔다. 귀를 기울였다. ‘동성애’로 인해 여러 친구들 사이에 혼돈과 고뇌와 고통이 퍼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답답하여서 찾아온 학생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성애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할 것인가?’ 그 답을 찾고 싶어 했다.

20여 년 전에는 필자에게는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전문성도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찾아왔을 때는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동성애 바라보기·바로보기’라는 수업을 개설하였고, 7~8명의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했지만 강요할 수 없었다. 강요는 학생들을 더 아프게 할 뿐임을 알기에, 배설하다시피 던지는 가르침의 말은 그 어떤 변화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함께 수업을 통해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학점제로 진행되는 학교였기에 필자는 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떤 관리자도 선생님도 해당수업에 대해 묵언으로 함께 해주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잠시 한 학기

만 내려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 동성애찬성, 동성애반대 > 양쪽의 입장을 조사해서 서로 충돌하게 하여 무엇이 옳은지 ‘가치관을 결정’하도록 돕는 방향의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첫 시간이 시작되었다.

먼저, 우리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한 나누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발췌했다.

학생1. 동성애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할지 고민스러워 답을 찾고 싶어왔습니다.

학생2. 종교적/비종교적/객관적/주관적 관점 혹은 역사적/법학적/정치적/심리적/ 병리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학생3. 소수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4. 종교적인 판단으로만은 시야가 좁아서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싶습니다.

학생5.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상대를 향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참여의사를 밝힌 이유들 하나하나가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주었다. ‘이 수업은 매우 특별한 수업이 될 거야. 그러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선생님의 생각이 전달되는 수업이 아니길 바래. 그리고 여러분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인 문화적 경험으로 찬반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일방적인 정보에 세뇌되어 찬반을 결정하지 않기 바란다.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견주게 하자. 샘은 그대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단다.’

학생들은 기꺼이 동의해주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

가? 이른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했다. 어떤 누구도 이에 관한 지침을 준 적이 없었다. 물론 이에 관한 교과서도 교사해설서도 없다.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만 했다.

‘도덕이나 사회교과가 아닌 과학교과교사인데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그러나 동성애가 단지 윤리적인 문제일 뿐인가? 아니다. 오히려 윤리적, 정치적, 문화학적, 의과학적, 법률적, 심리학적, 신학적 등 다양한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답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참조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 -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1) 윤리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윤리의 정의,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윤리의 관점, 보편적 윤리란, 절대적 윤리의 존재 가능성, 결혼과 가족의 정의, 동성애와 윤리문제, 소수자의 정의, 성소수자의 인권의 범위’ 등이 그 윤리적인 주제가 된다. 인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생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윤리의 존재가 있다면 전혀 다른 관점의 윤리적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2) 의학적 · 생물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동성 간(특히 남성) 성병 및 항문과 관련된 각종 질병 그리고 AIDS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지점에 대한 찬반논쟁,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특정 형질의 유전자에 대해 발현되는가, 유전의 유무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들의 최신 동향, ‘진화론적 관점에서 性的 목적적인 생식과 종족번식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절대적 초월자에 의한 性的 창조론적 관점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등에 관해 토론한다.

3) 법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친 동성애 진영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반대진영의 차별금지법 철폐시도, 헌법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균형법 위헌 의견을 낸 헌재소장후보,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주최한 학회 책임자 대법원장,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 국가인권기본계획 제정 시도 등을 통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논쟁 등을 다룬다.

4) 문화와 언론을 통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성적 지향과 취향의 문제는 동성을 넘어서 어디까지(양성애, 소아성애, 수간)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퀴어축제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에 등장하는 퀴어축제와 일반시민의 반응, 언론을 통한 커밍아웃의 역사 등을 다룬다.

5) 정치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의 동성애, 동성애의 옹호를 통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의 이미지구축,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치공방, 군대 내 동성애에 관한 정치인들의 언론플레이 등을 다룬다.

6)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바라보기 · 바로보기

퀴어 신학과 정통 신학자의 연구 논문을 대조하며 성경해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신학자의 근거들을 견주어, 바른 해석을 탐구한다.

대를 주장하는 지성인들의 근거들을 충돌시키는 것은 어떨까? 일방적인 가르침을 넘어 서야한다. 학생이 주체로 참여하는 참여수업 즉 배움중심수업으로 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식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다. 연구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생겼다. 그래서 연구-발제-토론-에세이의 대학원식 교수법을 구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기동안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동성애를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혼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내 신념과 내 주장의 근거들을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치로운 배움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동성애의 찬성과 반

[교수학습법 -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1. 선조사 :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 2주마다 한 주제씩 조사해온다. 모든 학생은 해당주제에 대한 찬반 양쪽자료를 준비한다.
2. 진행자 : 각 주제별로 두 명의 담당학생(섬기미 1, 2)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한다.
3. 교사역할
 - ① 전체 진행자와 미리 상의하여 진행과정을 디자인한다. 수업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설명한다.
 - ② 학생들이 찾기 힘든 자료들인 경우 조사하여 미리 배포한다.
 - ③ 학생들의 진행시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다.
 - ④ 에세이 평가를 통해 ‘동성애 바라보기’에 대한 학생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 ⑤ 에세이 평가 후 각 학생과 개인적으로 상담한다.
4. 수업진행과정
 - ① 첫째주 : 10분 정도. 그 주 해당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을 짧게 소개한다. 섬기미1의 진행에 따라 각자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한다.
 - ② 둘째주 : 섬기미2가 전 주의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다. 섬기미2의 진행에 따라 각자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한다.
5. 수업의 중요 원칙
 - ① 연구공동체 : 의사결정하는 모임이 아닌 연구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날 때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 ③ 열린 마음으로, 신념이 다른 학생을 설득하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근거를 확인하고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기가 종료되면서 평가를 위해서 ‘에세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수업은 마무리 되었다. 아쉬운 것은 그 다음의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 각자의 나름의 정답을 찾고 끝난 수업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다행히 평가 이후에 에세이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 친구들을 대하는 존중의 방안에 대해 나눔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 필자는 한 학기 내내 중요한 고민을 안고 걸어가야 했었다.

“가치중립을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

‘교사 개인의 신념’을 수업에 개입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난제를 품고 계속 고민했다.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단계가 아닌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에 관한 수업이라면 교사의 신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 반대인 생각 사이에 지속적인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결국 본수업에서는 가치중립을 철저히 지키려 했다. 통합적 이해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어야 했다.

다만 한 가지 장치를 해두었다. 만약 나의 신념을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면,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설교나 설득이 아닌 성찰’하도록 상담과 조언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

과의 열린 만남의 공간을 열어두었다. 내 신념을 듣기 원한다면, 나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 이후에 에세이로 상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

이 수업의 열매를 소개하고 싶다. 한 친구의 글이다.

앞서 CREDO 매거진 2018 December-January에 실린 성장통 ‘그리스도인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글을 쓴 제규진 학생의 글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